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음 7월 4일) 제18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와 신난다” 전주시가 전북도교육청,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추진한 ‘아동친화 놀이공간’ 개장식이 2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재성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개장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교통약자, 콜택시 타고 전국 방방곡곡 달린다

전주시, 10월부터 운행 확대
편도 이용자 기본료 1500원

대중교통을 이용해 타 지역을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이용해 전국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됐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운행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장애인단체 11개 대표자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 후 전주시의회를 통해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호 제3항 제2호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편도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1500원이며, 전주시를 벗어날 경우 1Km당 150원 등 편도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왕복 이용자는 편도 이용 요금과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를 내면 된다. 일일 최대 이용시간은 전북지역 내의 경우 8시간이며 전국 이용자는 12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또 이용자 우선순위는 1순위가 이용

목적이며, 2순위 장애인, 3순위 이용횟수, 4순위 발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장애인 단체와 3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이용요금 등을 조 골자로 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전국 운행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3대를 추가 구입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에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콜택시 증차 공급 범위, 시내 저상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교통약자와 서민들의 이동권은 생존권과도 같다”면서 “장애인이 편리한 교통은 모든 시민이 편리한 교통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대한 제반 문의사항이나 의견 제시는 전주시 시민교통과(063-281-2542) 또는 전주시설관리공단(063-271-2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세계잼버리 유치로 자신감 충만

2023 세계 잼버리를 전북도로 유치하게 됨에 따라 잼버리 유치 효과를 지역 내로 최대한 끌어들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 SOC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24일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효과와 추진과제’를 통해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이 전북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고하게 해 주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글로벌 리더 함양의 기회를 전라북도에 계는 국제적 민간 교류 특히 중국과의 관광객 및 경제적 교류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활동으로부터 파급되는 효과, SOC 조기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이며, 이들 효과가 전라

전북연구원 “국제적 민간 교류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아태 잼버리까지 열게 되면 265억원 부가가치 창출”
성공적 개최 위해 새만금 SOC 인프라 구축 등 방향 제시

북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아태 잼버리 등의 두 차례 프레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대회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198억원의 생산과 1,098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 전북도는 755억원의 생산, 812명의 고용, 26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현재 새만금 기반시설 및 용지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1조원대로 늘려 사업 기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전북도에 1조 2,589억원의 부가

가치가 현재가치 측면에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전북도에 대한 이미지 향상 효과가 자국 스카우트 회원들에게 전파되어 발생하는 브랜드 제고 효과는 1,505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전북도에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5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세계 잼버리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북으로 통하는 ‘전북-전국2 시간대

SOC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버스, 드론택시 등 미래 교통시연을 통해 전라북도 전략산업육성을 앞당기고 스마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전북도 농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와 전라북도 권역별 잼버리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전북 식자재 납품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대회를 14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해야 한다.

넷째, 탄소소재를 활용한 레프츠와 야영 장비 등의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탄소산업의 실용화전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잼버리 이후 국제 청소년 드림특구 지정, 한국 스카우트 100주년 기념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스카우트 및 잼버리의 의미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에코 융합섬유연구원, 2017 국제섬유교역전 참가

에코 융합섬유연구원은 2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섬유전시회인 ‘2017 대한민국 국제섬유교역전(PIS)’에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전북 에코 컨버전스 섬유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에코 컨버전스 섬유관에서는 전북에 소재하는 11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기능성 한지제품, 오가닉 유아복, 토르마린 침구류, 대마섬유,

천연염색제품 등 전북 특화섬유제품을 전시한다.

융합섬유원은 전년도 PIS 전북섬유 홍보관 운영결과 약 9억원의 수출성적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에코 컨버전스 섬유관을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 및 다양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구축으로 전북 섬유산업의 경쟁력과 마케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2017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2017.8.26(토) ~ 9.3(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교육부 · 전라북도 · 익산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 전북 무주군 무주읍 회북로 15 · 문의: (063)320-5004-05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9.2~9.3 (4일간)